

25. 과학적인 안목

이름: _____ ()학년 ()반 ()번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월 _____ 일

【본문 학습】

문장	虛 ¹ 子 ² 曰 ³ : 古 ⁴ 人 ⁵ 云 ⁶ ‘天 ⁷ 圓 ⁸ 而 ⁹ 地 ¹⁰ 方 ¹¹ ’ 이라 한대 허 자 왈 고 인 운 천 원 이 지 방	虛 비다 子 아들 曰 말하다 古 옛 云 이르다 天 하늘 圓 둥글다 地 땅 方 모, 네모
풀이	• 虛子: 허례허식과 공리공담만을 일삼는 인물 • 而: 그리고, ~하고 ▶ 허자가 말했다. 옛 사람들이 이르길 ‘하늘은 둥글고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하였는데,	
문장	今夫子言 ‘地體正圓’ 은 何也 오? 하니 금 부 자 언 지 체 정 원 하 야	今 지금 夫 사내 子 아들 體 몸 圓 둥글다 何 어찌
풀이	• 夫子: 상대의 높임말. • 正: 확실히 • 何也?: 어째서인가? ▶	
문장	實翁曰: 月掩日而蝕於日 한대 蝕體必圓 은 月體之圓也 요, 실 옹 왈 월 엄 일 이 식 어 일 식 체 필 원 월 체 지 원 야	實 열매 翁 늙은이 掩 가리다 蝕 좀먹다 於 어조사 體 몸 必 반드시 圓 둥글다
풀이	• 實翁: 실학적인 인물 • 於: ~을/를 • 圓: (환)에워싸다, (원)둥글다 ▶	
문장	地掩日而蝕於月 한대 蝕體亦圓 은 地體之圓也 라, 지 엄 일 이 식 어 월 식 체 역 원 지 체 지 원 야	地 지구 掩 가리다 體 몸 亦 또 圓 둥글다 之 ~의
풀이	• 實翁: 실학적인 인물 • 於: ~을/를 • 圓: (환)에워싸다, (원)둥글다 ▶	
문장	然則月蝕者 는 地之鑑也 어늘 見月蝕而不識地圓 이면 연 즉 월 식 자 지 지 감 야 견 월 식 이 불 식 자 원	然 그러하다 則 ~하면 者 놔, 것 鑑 거울 見 보다 識 알다 圓 둥글다
풀이	• 然則: 그러하다면 • 者: ~라는 것 • 地: 지구 • 圓: (환)에워싸다 (원)둥글다 ▶	

문장	是猶引鑑自照 ^{하되} 而不辨其面目也 ^니 不亦愚乎 ^{아?하다} 시 유 인 감 자 조 이 불 변 기 면 목 야 불 역 우 호	猶 같다 引 끌다 鑑 거울 照 비추다 辨 분별하다 亦 또 愚 어리석다 乎 어조사
풀이	• 是: 이는, 이것은 • 猶: ~와 같다 • 面目: 얼굴 • 不亦~乎: 또한 ~하지 아니한가? ▶	
문장	虛子曰: 地之非中 ^을 謹聞命矣 ^라 敢問銀河何界也 ^{오?하니} 허 자 왈 지 지 비 중 근 문 명 의 감 문 은 하 하 계 야	虛 비다 之 ~의 謹 삼가 命 목숨, 가르침 矣 어조사 敢 감히 銀 은 界 지경, 세계
풀이	• 地: 지구 • 非中: 중심이 아님 • 命: 가르침 • 何界: 어떤 세계 ▶	
문장	實翁曰: 銀河者 ^는 叢衆界以爲界 ^라 실 웅 왈 은 하 자 총 중 계 이 위 계	實 열매 翁 늙은이 叢 모으다 衆 무리 界 지경, 세계 爲 되다
풀이	• 者: ~라는 것 • 衆界: 많은 세계 • 以爲: ~이 되다 ▶	
문장	旋規於空界 ^{하여} 成一大環 ^{한대} 環中多界 ^{하니} 千萬其數 ^{라하다.} 선 규 어 공 계 성 일 대 환 환 중 다 계 천 만 기 수	旋 돌다 規 법, 원 於 어조사 空 비다 界 지경, 세계 環 고리 其 그 數 세다, 수
풀이	• 旋規: 둥글게 돌다 • 空界: 허공, 빈 공간 • 環中: 고리 안 ▶	

※ 사물의 이치를 따지고 주장하는 선인들의 과학 정신을 배울 수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引用 인용 •		•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
弘報 홍보 •		•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씬.
彈丸 탄환 •		• 탄알. 총포에 재어서 쏘면 폭발하면서 튀어 나가게 된 쇳덩이.
爆彈 폭탄 •		• 살상이나 구조물 파괴를 위하여 폭약을 채워서 던지거나 쏘거나 떨어뜨려서 터뜨리는 폭발물.
金科玉條 금과옥조 •		• 은 덩어리
秒針 초침 •		• 시계에서 초를 가리키는 바늘.
銀塊 은괴 •		•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

〔나〕

菌類 균류 •		• 지진의 진원(震源) 바로 위에 있는 지점.
震央 진앙 •		•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에, 많은 빛과 열을 내는 현상.
燃燒 연소 •		• 씨앗에서 싹이 틈.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비로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發芽 발아 •		• 광합성을 하지 않는 하등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좁은 뜻으로는 곰팡이, 효모, 버섯류를 가리킨다.

〔다〕

助力 조력 •		• 물기.
潮力 조력 •		• 힘을 써 도와줌. 또는 그 힘.
受粉 수분 •		•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일어나는 힘.
水分 수분 •		• 종자식물에서 수술의 화분(花粉)이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일.
昇華 승화 •		•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돛. 또는 그런 과정.
循環 순환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려고 발행하는 송금환.
順換 순환 •		•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있음.
關聯 관련 •		•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 일이 없이 곧바로 기체로 변하는 현상.
輝度 휘도 •		• 광원(光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
頻度 빈도 •		•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빛의 양.
透過 투과 •		• 같은 현상이나 일이 반복되는 도수(度數).
照度 조도 •		• 장애물에 빛이 비치거나 액체가 스미면서 통과함.
毒素 독소 •		• 해로운 요소.
毒笑 독소 •		• 독기를 품고 웃는 웃음.
組織 조직 •		•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細胞 세포 •		• 짜서 이루거나 엮어서 만듦.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
壞死 괴사 •		• 사물이나 현상의 중심. 핵무기. 원자핵.
核 핵 •		• 생체 내의 조직이나 세포가 부분적으로 죽는 일.
分列 분열 •		• 각각 갈라져서 늘어섬. 또는 그렇게 함.
分裂 분열 •		• 찢어져 나뉨. 집단이나 단체, 사상 따위가 갈라져 나뉨.

原子爐 원자로 • 地震 지진 • 抵抗 저항 • 崩壞 붕괴 • 破壞 파괴 •	• 원자핵 분열 연쇄 반응의 진행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원자력을 서서히 끌어내는 장치. • 무너지고 깨어짐. •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팀. •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일. •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림. 조직, 질서, 관계 따위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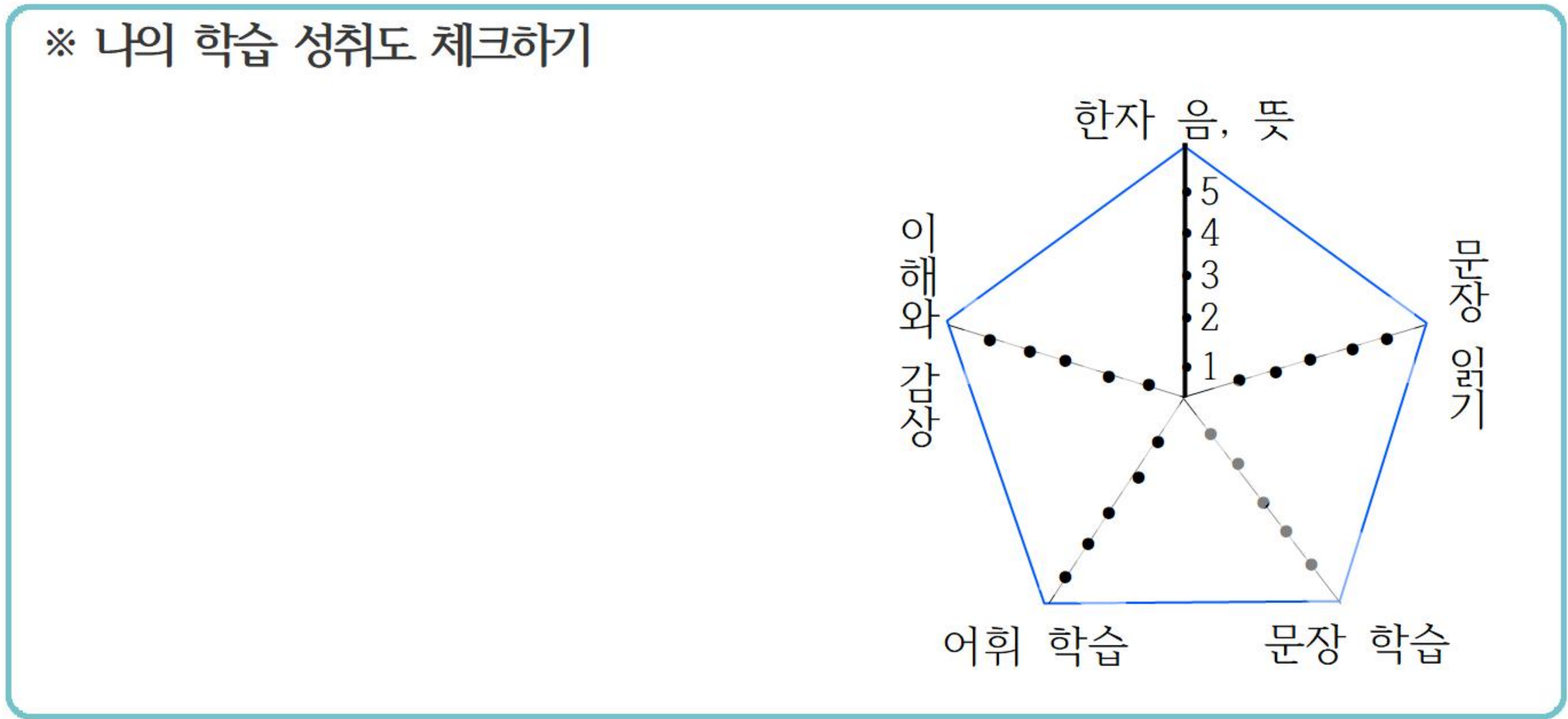
【꼭 알아 둬시다】

■ 한문 지식 정리

- 지시대명사: 是: 이는, 이것은
- 문장의 유형
 - 의문문: 의문문에는 상대방의 대답을 바라지 않고 의식적으로 물어 보는 반어 유형도 있다.
(예) 不亦愚乎: 또한 어리석지 아니한가?

■ 담헌서(湛軒書)

조선 후기 학자 홍대용(洪大容)의 문집으로 앞 시기의 실학과 대표 저술들이 소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킨 위에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려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담헌서(湛軒書)는 그것들과 공통적인 내용도 있지만 과학기술 탐구나 국제 관계 인식 등에서 한층 진전된 의식을 담고 있다. 홍대용의 절친한 후배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柳得恭)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정조가 추진한 문화 사업에 중요한 몫을 담당할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기에 실린 사상은 18세기 후반 조선 사상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그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26. 경제를 살리는 길

이름: _____ ()학년 ()반 ()번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월 _____ 일

【본문 학습】

문장	夫 ¹ 財 ² 는 譬 ³ 則 ⁴ 井 ⁵ 也 ⁶ 라. 汲 ⁷ 則 ⁸ 滿 ⁹ 이요, 廢 ¹⁰ 則 ¹¹ 竭 ¹² 이라.	夫 무릇 財 재물 譬 비유하다 井 우물 汲 (물을) 길다 滿 가득 차다 廢 폐하다 竭 (물이) 마르다
풀이	• 夫: 무릇 • 則:~하면 ▶ 무릇 재물은 비유하면 우물이다. 길으면(사용하면) 가득차고, 폐하면(사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문장	故 ^로 不 ^服 錦 ^繡 하여 而 ^이 國 ^무 織 ^錦 之 ^지 人 ^인 하면 則 ^즉 女 ^여 紅 ^紅 衰 ^衰 矣 ^의 라.	故 그러므로 服 옷, 입다 錦 비단 繡 수, 수놓다 織 (베를) 짜다 衰 쇠하다 矣 어조사
풀이	• 錦繡: 수놓은 비단 • 紅: (홍)붉다, (공)베 짜는 일 • 女紅: 부녀자들이 하던 길쌈. 바느질, 자수 등을 이르는 말 ▶	
문장	不 ⁴ 嫌 ³ 庖 ¹ 器 ² 하고 不 ⁴ 事 ³ 機 ¹ 巧 ² 하여	嫌 싫어하다 庖 비둘다 器 그릇 事 일, 섬기다 機 베틀, 기교 巧 공교하다, 기교
풀이	• 庖器: 찌그러진 그릇 • 機巧: 교묘한 솜씨, 좋은 기술이나 솜씨 ▶	
문장	而 ^이 國 ^무 工 ^공 匠 ^장 陶 ^도 冶 ^야 之 ^지 事 ^사 하면 則 ^즉 技 ^기 藝 ^예 亡 ^망 矣 ^의 라.	工 장인 匠 장인 陶 질그릇, 도공 冶 대장장이, 주물공 則 ~하면 곧 技 재주 藝 기예 矣 어조사
풀이	• 工匠: 수공업자. 공방에서 물품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 陶冶: 도공과 주물공 • 技藝: 재주, 갈고 닦은 솜씨나 기술 ▶	
문장	以 ^이 至 ^지 農 ^농 荒 ^황 而 ^이 失 ^실 其 ^기 法 ^법 하고 商 ^상 薄 ^박 而 ^이 失 ^실 其 ^기 業 ^업 하니	以 ~로써 至 이르다 農 농사 荒 거칠다 失 잃다 商 장사 薄 적다, 얇다
풀이	• 其法: 농사짓는 법 • 其業: 장사하는 일 ▶	

문장	四民俱困 ^{하여} 不能相濟 ^{하고} 사 민 구 곤 불 능 상 제	四 넷 民 백성 俱 함께, 모두 困 곤궁하다 不 아니다 能 능하다 相 서로 濟 구제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四民: 사농공상(士農工商) 不能: ~할 수 없다 	
문장	國中之寶 ^가 不能容於域中 ^{하여} 而入於異國 ^{이니} 국 중 지 보 불 능 용 어 역 중 이 입 어 이 국	中 가운데, 안 寶 보배, 보물 能 능하다 容 얼굴, 담다 於 어조사 域 지경, 땅 入 들어가다 異 다르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容: 수용하다, 용납하다 域中: 나라 안 異國: 다른 나라 	
문장	人日益富而我日益貧 ^은 自然之勢也 ^{라.} 인 일 익 부 이 아 일 익 빈 자 연 지 세 야	人 다른 사람 益 더욱 富 부유하다 貧 가난하다 自 스스로 저절로 然 그러하다 勢 기세, 형세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人: 다른 사람 我: 나 而: 그러나 	

※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고자 했던 박제가의 글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增益 증익 •	• 광택에 윤기가 있음.
緊縮 긴축 •	• 양식으로 쓰는 곡식.
倉庫 창고 •	• 더하여져 늙. 또는 더하여 늘게 함.
潤澤 윤택 •	•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
糧穀 양곡 •	• 바짝 줄이거나 조임. 재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지출을 줄임.

〔나〕

日暮途遠 일모도원 •	•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괴로움을 이르는 말.
塗炭之苦 도탄지고 •	•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늙고 쇠약한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많음을 이르는 말.

〔다〕

經濟 경제 •	• 가난함과 부유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活性化 활성화 •	•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따위가 서로 떨어져 다른 정도.
貧富 빈부 •	• 사회나 조직의 기능이 활발함. 그러한 기능을 활발하게 함.
隔差 격차 •	•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座標 좌표 •	•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
開陳 개진 •	•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 평면이나 공간 안의 임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나 수의 짝.
輸出 수출 •	• 사물이 처하여 있는 위치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供給 공급 •	•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
消費 소비 •	어 말하거나 글로 씀.
市場 시장 •	•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
	• 세력이나 권리 따위가 늘어남. 또는 늘어나게 함.
伸張 신장 •	•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앴.
批判 비판 •	• 물체의 뽀족한 끝. 시대사조, 학문, 유행 따위의 맨 앞장.
	•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尖端 첨단 •	•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
技術 기술 •	• 길러 자라게 함.
提携 제휴 •	• 행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서로 붙들여 도와줌.
基幹 기간 •	• 어떤 분야나 부문에서 가장 으뜸이 되거나 중심이 되는 부분.
産業 산업 •	•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
育成 육성 •	를 창출하는 활동 등.
	•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
賃貸料 임대료 •	• 남에게 물건이나 건물 따위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돈.
負債 부채 •	• 작은 생산 규모와 적은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상공업자.
零細業者 영세업자 •	•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不渡 부도 •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꼭 알아 둬시다】

■ 문장성분의 생략

문장 안에서 중복을 피하거나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예) 夫財는 譬則井也라. 汲則滿이요, 廢則竭이라. ∴ 주어인 財(재물)가 생략된 문장

무릇 재물은 비유하면 우물이다. (재물은) 길으면 가득차고, (재물은) 폐하면 말라 버린다.

■ 북학의(北學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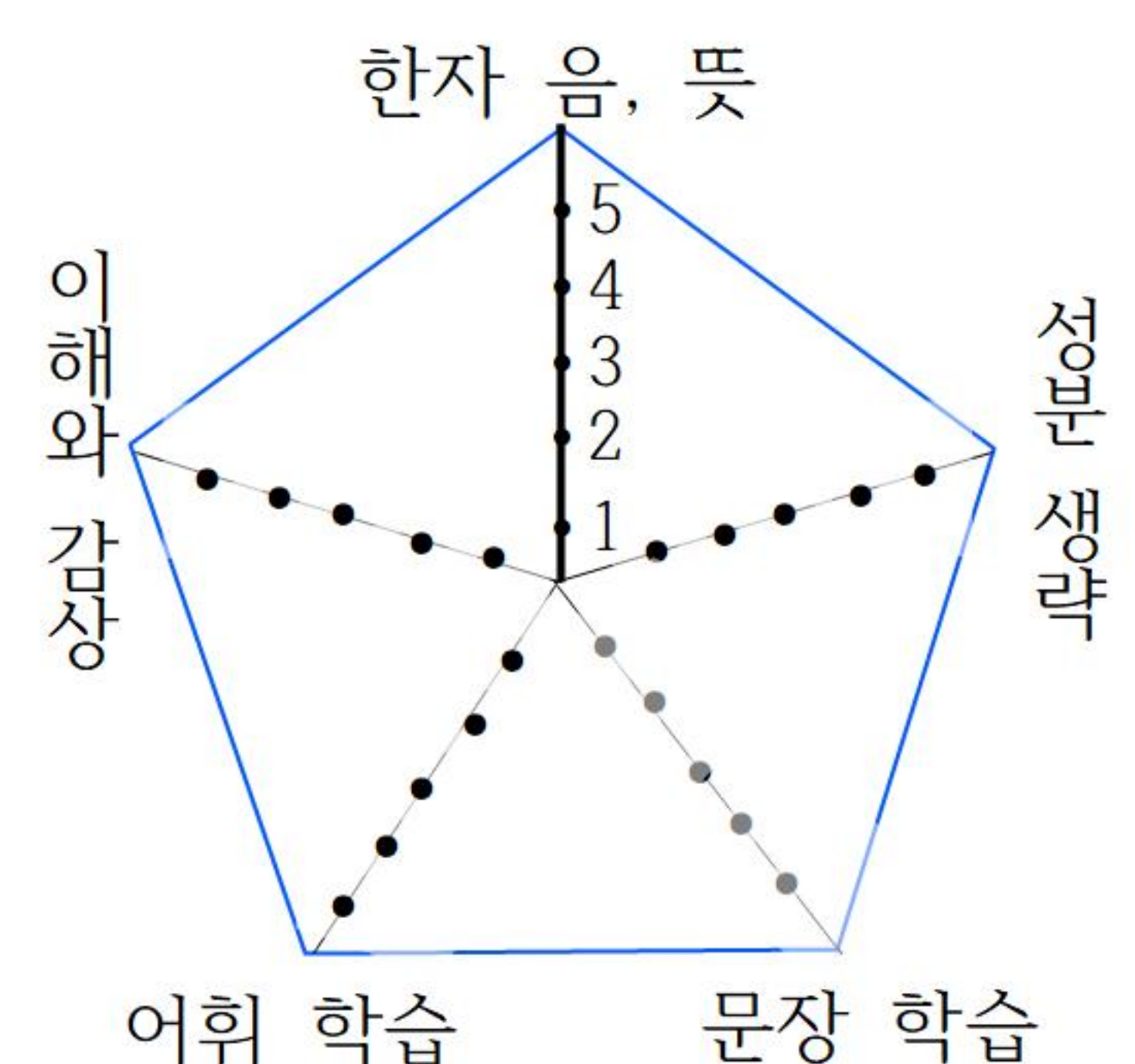
1778년(정조 2) 실학자 박제가(朴齊家)가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그 견문한 바를 쓴 책이다. 『북학의』는 이름 그대로 풀이하자면 '북학(北學)에 대한 논의', 곧 북쪽 나라를 배우자는 논의로 당시로서는 조선에 비해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된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는 주장을 피력한 책이다.

박제가가 이 책의 초고를 완성한 때는 그의 나이 20대 후반이었다. 당시 조선시대 학문의 주류는 주자 성리학이었다. 성리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꾀하는 정덕(正德)을 추구한 학문이지만, 박제는 그러한 왕조의 정통사상을 아예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와 현실적 상황을 앞세웠기에 북학의』는 지식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제는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구조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조선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발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검약이라는 도덕적 기준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기 보다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생산을 독려하여 활발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박제는 여기서 그의 유명한 비유를 쓰고 있다. 우물물은 길으면 길수록 물이 가득 차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말라붙는다. 국가의 경제도 것처럼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왕조의 경제 방향과는 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제는 이용후생(利用厚生)에서 한 가지라도 갖추어지지 않을 때에는 정덕을 따지는 것이 허울 좋은 이상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한 마디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덕이고 윤리고 간에 목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물질적으로 윤택한 개인의 생활과 부유하고 강성한 국가의 운영을 학자가 추구할 학문의 목표로 세웠다. 도덕 우위의 학문이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 박제는 공리주의와 효율성 추구의 사상을 과감하게 주장하였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27. 어진 삶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子張 ¹ 이 問 ⁵ 仁 ⁴ 於 ³ 孔子 ² 한대, 孔子 ⁶ 曰 ⁷ : 자 장 문 인 어 공 자 공 자 왈	子 아들, 선생 張 베풀다 問 묻다 仁 어질다 孔 성씨
풀이	• 於: ~에게 ▶ 자장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씀하시길	

문장	能行五者於天下 ^면 爲仁矣 ^{니라} . 請問之 ^{한대} , 능 행 오 자 어 천 하 위 인 의 청 문 지	能 할 수 있다 行 행하다 者 것 爲 되다 矣 어조사 請 청하다 問 묻다
풀이	• 於: ~에 • 之: (지시대명사) 그것 ▶	

문장	曰: “恭寬信敏惠 ^니 恭則不侮 ^{하고} , 寬則得衆 ^{하고} , 왈 공 관 신 민 혜 공 즉 불 모 관 즉 득 중	曰 말하다 恭 공손하다 寬 너그럽다 信 믿다 敏 민첩하다 惠 은혜 恭 공손하다 侮 업신여기다 得 얻다 衆 무리
풀이	• 則: (가정) ~이면(하면) ▶	

문장	信則人任焉 ^{하고} , 敏則有功 ^{하고} , 惠則足以使人 ^이 니라. 신 즉 인 임 언 민 즉 유 공 혜 즉 족 이 사 인	信 믿다 人 사람 任 맡다 焉 어조사 敏 민첩하다 功 공 惠 은혜 使 하여금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焉: 그에게(‘於之’의 축약형) • 足以: ~할 수 있다. ~하기에 충분하다. • 使: (사람을) 부리다. 	
문장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오 , 患其不能也 ^라 .” 자 왓 불 환 인 지 불 기 지 환 기 불 능 야	子 선생 患 걱정 人 사람 己 자기 知 알다 其 그 能 할 수 있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 ~하지 마라 • 之: ~이 • 也: ~이다. 	
문장	子曰: “由也 ^아 ! 女聞六言六蔽矣乎 ^아 ?” 자 왓 유 야 여 문 육 언 육 폐 의 호	子 선생 曰 말하다 由 말미암다 女 너 聞 듣다 言 말씀 蔽 폐단 矣 어조사 乎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由: 공자의 제자 자로의 이름. • 女: 너 (2인칭대명사=汝) • 矣乎: ~(인)가? 	
문장	對曰: “未也 ^로 이다.” 하니, “居 ^{하라} ! 吾語女 ^{하리} 라.” 하고 대 왓 미 야 거 오 어 여	對 대답하다 曰 말하다 未 아니다 也 어조사 居 살다 吾 나 語 말하다 女 너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居: 살다, 앉다 	

문장	好仁不好學이면 其蔽也愚하고, 호 인 불 호 학 기 폐 야 우	好 좋아하다 仁 어질다 不 아니다 學 배우다 其 그 蔽 폐단 也 어조사 愚 어리석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其: (지시대명사) 그 	
문장	好知不好學이면 其蔽也蕩하고, 호 지 불 호 학 기 폐 야 탕	好 좋아하다 知 알다 不 아니다 學 배우다 其 그 蔽 폐단 也 어조사 蕩 방탕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蕩: 방탕함(행실이 좋지 못함.) 	
문장	好信不好學이면 其蔽也賊하고, 호 신 불 호 학 기 폐 야 적	好 좋아하다 信 믿다 不 아니다 學 배우다 其 그 蔽 폐단 也 어조사 賊 해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賊: 도적, 적 / 해치다 	
문장	好直不好學이면 其蔽也絞하고, 호 직 불 호 학 기 폐 야 교	好 좋아하다 直 곧다 不 아니다 學 배우다 其 그 蔽 폐단 也 어조사 絞 급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絞: 옥죄다. 목매다. 급하다. 	

문장	好勇不好學이면 其蔽也亂하고, 호 용 불 호 학 기 폐 야 란(난)	好 좋아하다 勇 용기 學 배우다 其 그 蔽 폐단 也 어조사 亂 어지럽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亂: 어지럽다 / 방자하다 	
문장	好剛不好學이면 其蔽也狂이나라. 호 강 불 호 학 기 폐 야 광	好 좋아하다 剛 강하다 學 배우다 其 그 蔽 폐단 也 어조사 狂 경솔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狂: 미침, 경솔함, 과격함. 	
문장	子曰: “天下國家를 可均也며 爵祿을 可辭也며, 자 왈 천 하 국 가 가 균 야 작 록 가 사 야	子 선생 天 하늘 國 나라 家 집 可 할 수 있다 也 어조사 爵 벼슬 辭 사양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可: ~할 수 있다. 均: 고르다 祿: 벼슬아치에 주던 금품같은 것 	
문장	白刃을 可蹈也로되 中庸은 不可能也나라.” 백 인 가 도 야 중 용 불 가 사 야	白 희다 刃 칼날 可 할 수 있다 蹈 밟다 也 어조사 中 가운데 庸 쓰다 能 할 수 있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白刃: 흰 칼날(날이 선 칼) 中庸: 어느 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 	

※ 공자의 주된 사상인 仁, 六言六蔽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p>騷人 소인 • 聰俊 총준 • 副作用 부작용 • 肖像 초상 • 天命 천명 • 拙夫 졸부 • 東夷 동이 • 陳奏 진주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본래의 작용에 부수하여 일어나는 작용. • 타고난 수명. 하늘의 명령. •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동쪽에 있는 민족을 멸시하여 일컫던 말. 곧, 일본·만주·한국 등을 가리킴. • 총명하고 준수함. •윗사람에게 사정을 밝혀 아뢰. • 문인이나 시인. •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나 사진. •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를 낮추어 일컫는 말.
---	---

〔나〕

<p>諸侯 제후 • 角逐 각축 • 鄰接國 인접국 • 侵掠 침략 • 紛爭 분쟁 • 搖動 요동 • 悲慘 비참 • 秩序 질서 • 賓客 빈객 • 招聘 초빙 • 宰相 재상 • 官吏 관리 • 周圍 주위 • 盟約 맹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노해서 약탈함. • 흔들리어 움직임. • 예를 갖춰 불러 맞아들임. • 이웃해 있는 나라. • 관직에 있는 사람. • 어떤 곳의 바깥 둘레. •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 • 왕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이품 이상의 벼슬. • 봉건 시대에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던 사람. • 사물의 조리. • 맹세하여 맺은 굳은 약속. • 서로 이기려고 경쟁함. • 귀한 손님. •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	---

〔다〕

<p>燈燭 등촉 • 開封 개봉 • 珍貴 진귀 • 興味 흥미 • 翻譯 번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배롭고 귀중하다. • 흥을 느끼는 재미. • 등불과 촛불. • 한 나라의 말로 표현된 문장의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옮김. • 봉한 것을 떼어 옴.
--	---

【꼭 알아 둬시다】

■ 한문 지식 정리

- 주술목보 구조: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문장. (예) 子張(주)問(술)仁(목)於孔子(보)
- 문장 성분의 도치: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예) 不患人之不己知: 대명사 ‘己’가 목적어이므로 ‘知’앞에 온다.

■ 전손사(顓孫師)와 자로(子路)

- 전손사(顓孫師, 기원전 503년 ~ ?):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공자의 제자로, 자는 자장(子張)이며 진(陳)나라 사람이다. 매사에 의욕적인 인물로 배우는 데도 열의가 있었고, 위급한 것을 보면 생명을 내걸 정도로 의협심이 강했다. 공자보다 48세 아래 후기 제자로 공문십철에는 들지 못했다.
- 자로(子路, 기원전 542년 ~ 기원전 480년): 중국 춘추 시대 노나라의 정치가이자, 무인이다. 이름은 증유(仲由)이지만, 그의 자인 자로(子路)가 알려져서 자로라고 부른다. 또 다른 호칭인 계로(季路)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자(孔子)의 핵심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공자의 천하유세 동안 고난을 끝까지 함께 하였다. 자로는 공자가 살아 있을 때 염구와 함께 노나라의 유력한 정치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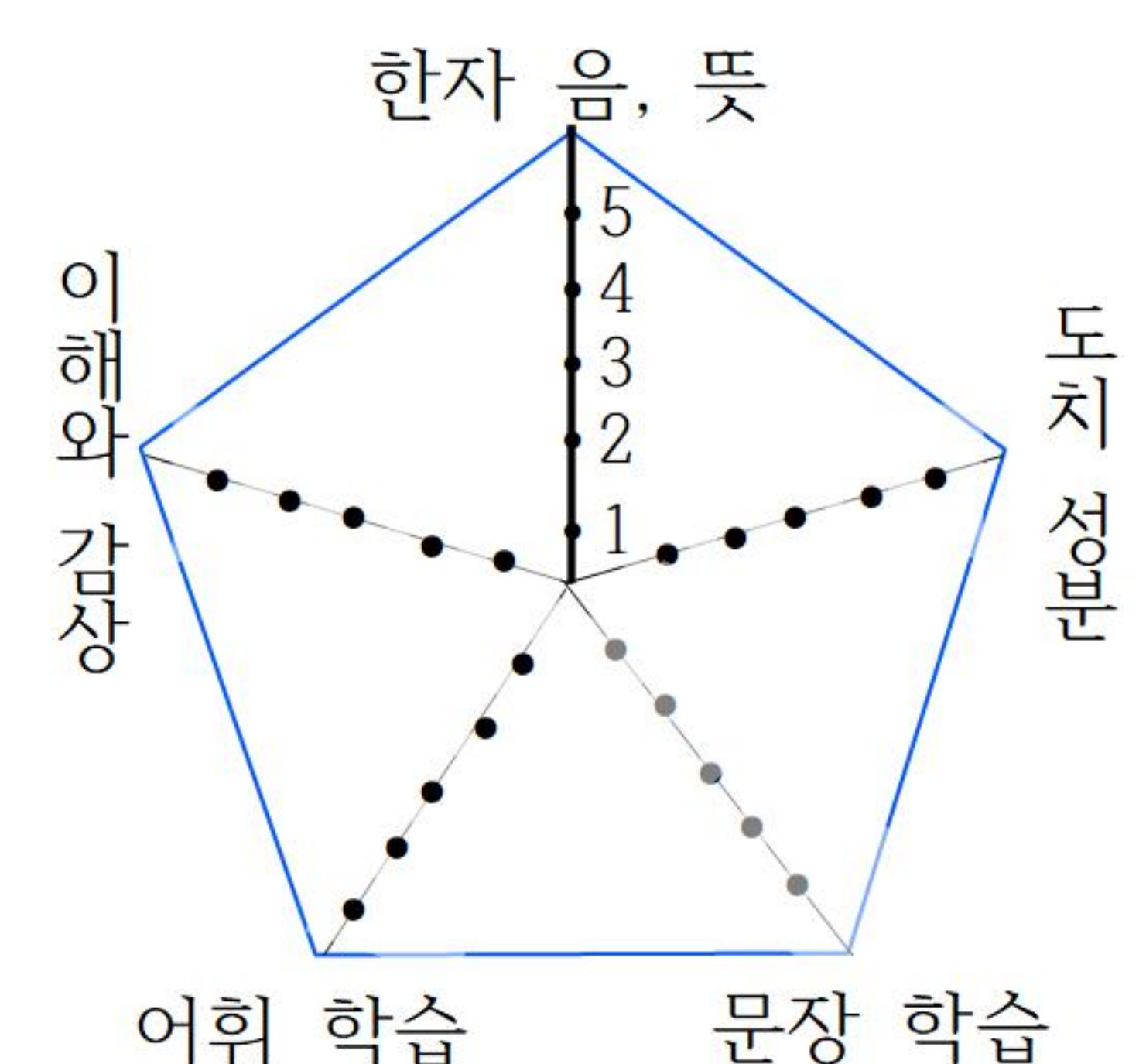
■ 《중용》에 대하여

《중용》은 《대학》·《논어》·《맹자》와 더불어 사서(四書)라고 한다. 유교에서 사서라는 일컬음이 생긴 것은 중국의 송나라 때에 주희(朱熹)가 《예기》 49편 가운데 <대학>·<중용>을 떼어내어 《논어》·《맹자》와 함께 사서라 이름을 붙였다. 《중용》은 이와 같이 《예기》 속에 포함된 한 편이었지만 일찍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으며, 한나라 이후에는 주해서가 나왔으며 33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송나라 정이(程頤)에 이르러 37장이 되었다가 주희가 다시 33장으로 가다듬어 독립된 경전으로 분리시켰다.

■ 《논어》의 편찬자

《논어》의 편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① 자하(子夏)를 비롯한 공자의 제자들, ② 자하·중궁(仲弓)·자유(子游) 등, ③ 증삼(曾參)의 문인인 악정자춘(樂正子春)과 자사(子思)의 무리, ④ 증삼과 유자(有子)의 문인 등이 그것인데, 《논어》가 공자 자신의 손으로 기록, 정리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28. 의로운 실천

이름: ()학년 ()반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孟子 ¹ 曰 ² : “養 ⁴ 心 ³ 은 莫 ⁹ 善 ⁸ 於 ⁷ 寡 ⁶ 欲 ⁵ 이라.” 맹 자 왈 양 심 막 선 어 과 욕	孟子 성씨 子 선생 養 기르다 莫 없다 善 좋다 寡 적다 欲 욕심
풀이	• 善: 착하다, 좋다 • 於: ~보다 • 寡慾 ≠ 過慾 ▶ 맹자가 말씀하시길 “ 마음을 수양하는 것은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문장	孟子見梁惠王 ^{한대} , 王曰: 맹 자 견 양 혜 왕 왕 왈	孟子 성씨 子 선생 見 보다 梁 나라이름 惠 은혜 王 왕 曰 말하다
풀이	• 梁惠王: 중국 전국 시대 위나라의 제3대 군주 ▶	
문장	叟不遠千里而來 ^{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 ^{잇가?} 수 불 원 천 리 이 래 역 장 유 이 리 오 국 호	遠 멀다 來 오다 亦 또한 將 장차 以 어조사 利 이롭다 吾 나 乎 어조사
풀이	• 叟: ‘늙은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맹자’를 부르는 말. ▶	
문장	孟子對曰: 王 ^은 何必曰利 ^{잇고?} 亦有仁義而已矣 ^{니이다} . 맹 자 대 왈 왕 하 필 왈 리 역 유 인 의 이 의	對 대답하다 何 어찌 利 이롭다 亦 또한 仁 인 義 의
풀이	• 而已矣: (종결사) ~일 뿐이다. • 何必: 하필(어찌하여) ▶	

문장	敢問 ^{하노니} 何謂浩然之氣 ^{잇가?} 감 문 하 위 호 연 지 기	敢 감히 何 어찌 謂 말하다 浩 넓다 然 그렇다 氣 기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何: (의문사) 어찌 	
문장	曰: 難言也 ^{라.} 其爲氣也 ^는 至大至剛 ^{하여} 왈 난 언 야 기 위 기 야 지 대 지 강	難 어렵다 言 말하다 也 어조사 氣 기 至 지극히 剛 강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至: 아주, 매우, 지극히 	
문장	以直養而無害 ^면 則塞于天地之間 ^{이라.} 이 직 양 이 무 해 즉 색 우 천 지 지 간	以 어조사 直 곧다 養 기르다 而 어조사 害 해롭다 則 곧 塞 막다 間 사이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以~: ~로써 而: 그리고 于: ~에 	
문장	其爲氣也 ^는 配義與道 ^{하니} 無是 ^면 餒也 ^{라.} 기 위 기 야 배 의 여 도 부 시 뇌 야	其 그 氣 기운 也 어조사 配 짝 義 의 與 함께 是 이 餒 주리다 也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與: ~와(과) 	
문장	孟子 謂高子曰: 山徑之蹊間 ^이 介然用之而成路 ^{하고} 맹 자 위 고 자 왈 산 경 지 혜 간 개 연 용 지 이 성 로	謂 말하다 徑 지름길 蹊 지름길 介 끼다 然 그렇다 用 쓰다 成 이루다 路 길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高子: 춘추 시대 위나라 대부. 공자의 제자 介然: 갑자기 	

문장	爲閒不用 ^{이면} 則茅塞之矣 ^{나니} 今 ^에 茅塞子之心矣 ^{로다} . 위 한 불 용 즉 모 색 지 의 금 모 색 자 지 심 의	爲 하다 閒 틈 用 쓰다 茅 띠 塞 막다 茅 띠 塞 막다 子 너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爲閒: 짧은 시간 子: (2인칭대명사) 너, 자네 	
문장	王曰: 吾惛 ^{하여} 不能進於是矣 ^{하니} 왕 왈 오 혼 불 능 진 어 시 의	吾 나 惛 어둡다, 能 어리석다 能 할 수 있다 進 나아가다 是 이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矣: (종결사) ~이다 	
문장	願夫子 ^는 輔吾志 ^{하여} 明以教我 ^{하소서} . 원 부 자 보 오 지 명 이 교 아	願 바라다 輔 돕다 吾 나 志 뜻 明 밝다 教 가르치다 我 나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夫子: ‘선생’이라는 의미로 ‘맹자’를 가리킴. 	
문장	我雖不敏 ^{이나} 請嘗試之 ^{하리이다} . 아 수 불 민 청 상 시 지	我 나 雖 비록 敏 민첩하다 請 청하다 嘗 시험하다 試 시험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雖: 비록 ~지만 嘗試: 시험하다 	
문장	曰: 無恒産而有恒心者 ^는 唯士爲能 ^{이어니와} 왈 무 항 산 이 유 항 심 자 유 사 위 능	恒 항상 産 날다 恒 항상 心 마음 者 사람 爲 하다 能 할 수 있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唯: 오직 ~만 恒産: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 또는 생업 恒心: 늘 지니고 있어 변함없는 떳떳한 마음 	
문장	若民則無恒産 ^{이면} 因無恒心 ^{이라} . 약 민 즉 무 항 산 인 무 항 심	若 만약 則 곧 無 없다 恒 항상 産 날다 因 원인 心 마음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若: 만약 因: ~으로 인하여 	

문장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已니, 구 무 항 심 방 벽 사 치 무 불 위 이	苟 진실로 無 없다 放 방탕 辟 치우치다 邪 간사하다 侈 사치하다 爲 하다 已 뿐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無不~: ~하지 않음이 없다. 	
문장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급 함 어 죄 연 후 종 이 형 지 시 망 민 야	及 미치다 陷 빠지다 然 그렇다 後 뒤 從 쫓다 從 형벌 是 이것 罔 그물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然後: ~한 뒤에 • 是~也: 이것은 ~이다. • 罔民: 백성을 그물질하다. → 백성을 속이다. 	
문장	焉有仁人이 在位하여 罔民을 而可爲也리오? 언 유 인 인 재 위 망 민 이 가 위 야	焉 어찌 仁 어질다 在 있다 在 자리 位 그물 罔 백성 民 할 수 있다 可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焉: 어찌 	

※ 맹자의 주된 사상인 仁義와 浩然之氣를 주용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論孟 논맹 •	• 기온·비·눈·바람 따위의 대기 상태.
猛烈 맹렬 •	• 논어와 맹자.
氣候 기후 •	• 비탈길.
諸侯 제후 •	• 침을 놓거나 뜸을 뜨기에 적당한 자리.
經穴 경혈 •	• 봉건 시대에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던 사람.
斜徑 사경 •	• 기세가 사납고 세참.

〔나〕

首丘初心 수구초심 •	•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림.
萬事亨通 만사형통 •	• 달리 어찌할 수 없음.
莫無可奈 막무가내 •	•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다〕

思想 사상 •	• 여럿이 한꺼번에 함.
哲學 철학 •	• 인간과 세계에 대한 궁극의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
一齊 일제 •	• 사고 작용의 결과로 얻은 체계적 의식 내용.
牽制 견제 •	• 한쪽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못하게 억누름.
複雜 복잡 •	• 지치고 쇠약해짐.
疲弊 피폐 •	•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貪慾 탐욕 •	•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恣意的 자의적 •	•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參酌 참작 •	• 거부하여 물리침.
排斥 배척 •	•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
利益 이익 •	• 이리저리 비교해 보고 알맞게 헤아림.
贊反 찬반 •	• 많지 않고 흐림.
混濁 혼탁 •	• 더욱 심함.
混亂 혼란 •	• 일이나 물건의 갈피가 뒤섞여 어수선하다.
愈甚 유심 •	• 찬성과 반대.
道家 도가 •	• 형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주장한 관자(管子)·한비자(韓非子) 등의 학파.
法家 법가 •	• 노자와 장자의 허무·무위(無爲)의 설을 따르던 학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墨家 묵가 •	• 공자의 학설과 학풍 등을 신봉하고 연구하는 학자나 학파.
儒家 유가 •	• 사람들이 서로서로 똑같이 사랑하고 이롭게 하자는 학설.
老莊 노장 •	• 물리쳐서 제외함.
人爲 인위 •	• 삼공·구경·대부의 총칭. 곧, 벼슬이 높은 사람들.
排除 배제 •	• 이론이 깊고 어려워 깨닫기 힘든 학문.
無爲自然 무위자연 •	•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놓는 요구나 견해.
玄學 현학 •	• 노(魯)나라의 사상가인 묵자(墨子)의 학설을 신봉함.
隸屬 예속 •	• 겸애를 기본 이념으로 삼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
墨子 묵자 •	• 딸려서 매임.
兼愛說 겸애설 •	• 노자와 장자.
條件 조건 •	• 자연에 맡겨 덧없는 행동은 하지 않음.
公卿大夫 공경대부 •	•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

【꼭 알아 둬시다】

■ 한문 지식 정리

- 형용사의 활용: 형용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올 때, ‘~라고 여기다.’라는 뜻을 갖는다.
- 문장 성분의 도치: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 孟母三遷之教(맹모삼천지교)

맹자가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자 어머니 장(仉) 씨는 수절을 했다. 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맹자는 장사를 지내는 일이나 앓았다 일어났다 하며 우는 것을 흉내 냈다. 어머니는 “이곳은 아이를 살게 할 곳이 못 되는구나.”라고 말하고 그곳을 떠나 시장 근처 도살장이 가까운 곳에 집을 정했다. 맹자는 장사하는 것과 도살하는 일을 흉내 냈다. 어머니는 또 “이곳 역시 아이를 살게 할 곳이 못 되는구나.”라고 말하고 이어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다. 매일 초하루가 되면 관원들이 문묘에 들어와 예를 행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읍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를 행했다. 맹자는 그것을 보고 일일이 익히고 기억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은 정말 아이를 살게 할 만한 곳이구나.”라고 말하고 드디어 그곳에 살았다.

■ 양혜왕(梁惠王)

위 혜왕(魏 惠王, 기원전 400년 ~ 기원전 334년)은 중국 전국 시대 위나라의 제3대 군주(재위: 기원전 370년 ~ 기원전 334년)이다. 혜성왕(惠成王)으로 불리기도 한다. 맹자에서는 양혜왕(梁惠王)으로 기록되었고, 장자에는 문혜군(文惠君)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은 희(姬). 씨는 위(魏). 휘는 앵(瑩)이다.

■ 맹자와 순자

맹자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났다(성선설)고 하고, 순자는 그와 반대로 사람은 악하게 태어났다(성악설)고 한다. 매우 대립적으로 보이는 성선설과 성악설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본성을 논하는 근본적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다. 성선설에서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 악해짐으로 인성을 계속 가다듬어 본성이 악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악설은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나 예의를 함양해야 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순자는 당연히 예의를 몸에 체득하는 교육을 통해, 맹자는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악해지지 않도록 자기 경계와 함께 유학적 배움에 근거해 방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결국 큰 차이가 없다.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